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참 고 자 료	http://www.motie.go.kr

7. 11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7. 11. (수)	담당부서	산업일자리혁신과
담당과장	최연우 과장 (044-203-4220)	담 당 자	유은 사무관 (044-203-4222)

산업부,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

- 상반기 고용상황 점검 및 하반기 고용 동향 전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7. 11.(수), **주요 업종별 단체**와 함께 **제조업 고용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**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**주요 업종별로 상반기 고용 상황 점검**과 **하반기 고용 전망**과 함께, 이에 대한 **대응 방안 논의를** 위해 이루어졌다.

* 월별 제조업 고용실적(천명, 전년동월대비 증감율)
: ('18.1) 4,609, +2.4% → ('18.2) 4,562, +0.3% → ('18.3) 4,554, +0.3%
→ ('18.4) 4,473, -1.5% → ('18.5) 4,507, -1.7% → ('18.6) 4,482, -2.7%

< 행사개요 >

○ **(일시/장소)** '18. 7. 11.(수) 14:00~15:00 / 한국생산성본부 (서울)

○ **(참석자)**
- 산업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등
- 자동차, 조선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, 섬유, 기계, 전자 등 주요 업종별 단체

○ **(주요 내용)** 업종별 상반기 고용상황 분석, 하반기 고용 전망 및 대응방안

□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**내수 증가세 약화**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**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**되는 등 대·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,

○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인 **제조업 경기가 활성화**되어 **고용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**,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□ **업종별 단체들은** 업계 시황에 따라 **고용에 대해 상반된 평가**를 했다.

○ **반도체·기계** 등은 **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**하였으나, **자동차**는 한국 지엠(GM) 구조조정에 따른 **일부 차종 생산 중단**, **조선**은 **전년 대비 건조량 감소**, **섬유**는 **해외 생산 확대** 등의 사유로 **고용이 위축**되었다고 평가했다.

○ **하반기**에는 **반도체·기계·석유화학** 등을 중심으로 **고용 증대**를 **예상**했으나, **섬유**(해외생산)·**가전**(해외생산)·**조선**(경영환경악화) 등 **일부 업종**은 **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**될 것으로 전망했다.

< 업종별 단체의 하반기 전망 요약 >

No	업종	하반기 고용 전망
1	반도체	▸ 국내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, 국내 설비 투자 등으로 대기업, 중소기업 모두 고용 증대 전망
2	기계	▸ 역대 최초로 수출 500만불 연중 달성이 예상되는 등 수출호조세*에 따라, 하반기 고용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* '18년 분기별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1Q)9.23, (2Q)9.95, (3Q)6.37e, (4Q)2.65e
3	석유화학	▸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설비투자와 및 R&D 투자확대로 고용은 지속 증가할 전망
4	디스플레이	▸ LCD에서 OLED로 주력분야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,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패널기업은 큰 변동 없이 고용 규모 유지 전망 ▸ 韓.中 패널기업의 투자에 따른 장비 등 수주 물량 증가로 장비기업은 소폭 증가
5	철강	▸ 고용은 큰 변화 없이 예년 수준 유지 중
6	자동차	▸ 한국GM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생산 중단과 완성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부진 등으로 상반기 생산.수출이 감소되어 고용도 동반 감소 ▸ 하반기에는 한국GM 경영회생,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·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상반기 대비 고용 감소폭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
7	섬유	▸ 해외생산 확대, 국내 면방직 공장 일부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로 당분간 고용이 감소할 전망
8	가전	▸ 해외생산비중 확대 추세 등으로 고용 감소 예상 * 고용('15→'18.1Q, 천명) : (가전 매출액 상위 3사計) 31 → 27.6 (3.4↓)
9	조선	▸ '16년부터 이어져온 수주불황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대형3사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고용 감소 중 ▸ 하반기에는 수주회복세가 전망되나, 장기 시황침체로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어 당분간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* * 현대重 해양부문 가동중단, 성동조선 구조조정, 대우조선·한진중 물량감소 등

□ 이에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이 **적극적으로 투자**하고, **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**를 만들기 위해 **총력 지원**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○ 주력 제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, 민간일자리 창출의 **돌파구를 마련**하기 위해 ① 「(가칭)**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**」을 수립·발표(잠정 '18.3사분기)할 계획이다.

-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**민간의 혁신성장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현장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**하여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.

○ 또한, ②「(가칭)**민·관 합동 투자 애로 해소지원단***」을 발족하여, 기업 **투자의 걸림돌인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·해소**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.

* 구성(안): 산업부 산업정책실장, 산업부 업종과 및 업종별 단체로 구성

○ ③특히,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**자동차·조선·섬유** 등과 관련하여서는, **위기극복 지원, 생산·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**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

- 자동차는 **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**('18년 추경, 250억원)을 긴급 편성하여, 어려움에 처한 중견·중소 부품기업의 **새로운 수요처 발굴 및 전기 자율차로의 사업 전환**을 지원할 계획이다.

  · 또한, **전기수소차 시장확대·자율주행차 기술력 확보**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다.

- 조선도 **기자재사 위기극복 지원**(120억원), **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**(47억) 등 **총 300억 원의 추경 편성·지원**과 동시에,

  · 중장기적으로 **자율운항선박 개발, 친환경 기자재 실증, 스마트케이(K)야드 등 혁신**을 통해 **양질의 일자리가 창출**되도록 지원할 것이다.

- 섬유는 ①**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**('18년, 5.4억원)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②**스마트공장 확산**('18년, 30.4억)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, ③**창업지원 확대**('19~)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최연우 과장(☎ 044-203-4220), 유은 사무관(☎ 044-203-42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실물경제동향 점검회의 개요**

1. 개최배경

□ 6월 제조업 고용이 대폭 악화됨에 따라, **업종별 상반기 고용상황** 및 **하반기 고용 전망** 등을 논의하고 **정책 반영 추진**

2. 회의 개요

□ 일시: '18.7.11(수) 14:00~15:00

□ 장소: KPC

□ 참석: 산정실장님 주재

(우리부) 산업정책실장, 일자리TF 단장

(업종단체) 자동차, 조선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, 섬유, 기계, 전자 등 협·단체

3. 세부 진행계획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 ~ 14:05 (5')	▪ 인사말씀	산정실장
14:05 ~ 14:15 (10')	▪ 6월 고용동향 발제	일자리TF 단장
14:15 ~ 14:55 (40')	▪ 토론	참석자 전원
14:55 ~ 15:00 (5')	▪ 마무리 말씀	산정실장